

전주에 호남 첫 ‘아세안홀’ 9월 개관한다

전주시, 한-아세안센터와 전주 아세안 홀 MOU 맺어... 성공적인 조성·운영·교류 확대 협력 방안 논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에 아세안 11개 국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내 3번째이자 호남권 최초의 아세안 홀이 들어선다.

전주시와 한-아세안센터, (재)전주문화재단은 22일 시청 3층 시민소통공간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재)전주문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와 아세안 지역 간의 교류 증진과 전주 아세안홀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전주홍보관에 조성되는 아세안 문화 전시 공간인 전주 아세안 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 아세안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한-아세안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아세안 지역 간 교류 증진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협약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전주 아세안 홀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협력 사항을 담은 실행 중심의 협



전주시와 한-아세안센터, (재)전주문화재단은 22일 시청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와 아세안 지역 간의 교류 증진과 전주 아세안홀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층과 제주 국제평화센터 지하 1층에 아세안 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 아세안 홀은 국내 세 번째이자 호남권 최초의 아세안 문화교류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9월 17일 개관 예정인 전주 아세안 홀은 '아세안 시간을 잇는 손'을 주제로 조성된다.

전시 공간에는 아세안 11개국의 문화와 역사 생활양식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을 비롯해 아세안 관련 도서와 자료를 만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공간이 마련된다. 또 의복과 가전, 소리, 빛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통해 아세안 문화유산과 예술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소개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 아세안 홀이 들어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기존 한복과

한식, 한지 등 대한민국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곳이 아세안 문화와 한국 전통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융합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주 아세안 홀이 개관할 경우, 국제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문화관광 활성화, 문화 다양성 증진,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지훈 시장은 "전주 아세안 홀은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 자산과 아세안의 다채로운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국제문화교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전주 아세안 홀이 국제문화도시 전주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문화다양성 증진과 글로벌 문화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한-아세안센터, 전주 문화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전주 아세안 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논 재배용 사료피 '만온' 개발

무더위·장마에도 잘 버텨... 사료피 시기별 품종 체계 확립 '논 활용높이고 조사료자급률제고기대'... 2028년 농가 보급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풀사료 작물인 '사료피'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이용 기술까지 확보해 농가 보급 확대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논을 활용한 풀사료 생산 확대와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만생종 신품종 '만온'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조생종 '조온', 중생종 '다온'과 함께 사료피의 조·중·만생 품종 체계를 완성했다.

최근 정부가 전라작물직불제를 확대하면서 논에서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는 여름철 풀사료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수류와 사료를 육수주는 천수와 습해에 약해는 재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료피+HRG' 이모작의 총수익은 기존 '식용벼+HRG' 재배보다 약 23%(헥타르당 123만7천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존 예취기와 원형배일러 등 기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장비 구입 부담이 없고 건물 기준 가격도 수입 건조초보다 약 31% 저렴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부터 종자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도, 재난경보 발령 지원시스템 개발... '대피 더 신속하게'

대피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신속 확인... 경보 전달 누락 최소화

담당 공무원 생생형 AI 활용 직접 개발...14개 시군 재난현장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가 풍수해, 산사태,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재난경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방위 재난경보는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재난대응부서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도 경보통제소나 시군 및 읍면동 민방위 경보 담당자가 음성방송과 사이렌을 통해 주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경보다. 재난문자와는 별도로 현장 주민

에게 위험 상황과 대피 필요성을 직접 알리는 수단이다.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으로 기존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시 주민 대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난경보는 시군 전체가 아니라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에만 발령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이렌과 음성방송이 실제 전달되는 경보시설을 신속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경보가 전달되는 주민 규모를 수작업으로 산정하고, 경보시설 위치와 사이렌이 틀리는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담

당자의 업무 부담이 크고,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

전북도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담당 주무관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생생형 AI 기반 개발 방식으로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다.

지난 5월 개발에 착수해 약 2개월간 기능을 고도화했으며, 행정안전부·기상청·산림청 등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했다.

이 시스템은 △경보시설 위치와 사이렌 도달 범위 지도 표시 △대피명령 발령 지역의 사이렌 도달 여부 확인 △기상특보·산사태·산불·하천수위·저수지수위·대피명령 등 재난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읍면동별 경보 전달 가능 인구와 비울 자동 계산 등 기능을 갖췄다.

재난대응부서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경보 발령 요청이 접수되면 담당자는 지도에서 대피명령발령 지역을 선택하여 사이렌이 도달 가능한 경보시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재난 정보도 한 화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 상황 판단과 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대상 지역에 경보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사이렌 도달 범위 확인과 가정인구(경보 전달 가능 인구) 산출 계산 과정을 자동화해 시군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담당 공무원이 외부 용역 없이 직접 개발해 별도의 구축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2개 시군 선정

국비 51억원 확보... 정읍·진안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서 정읍시, 진안군 등 도내 2개 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51억원을 확보했다.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88억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지역활력사업이 추진되며, 생활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성장축진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SOC와 지역 특화사업을 지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정읍시와 진안군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문화·교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정읍시는 '반올림 정읍정(井)원 조성사업'을 통해 정읍역 인근 유흥공간을 활용한 정원과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총사업비 51억원(국비 21억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도심 속 문화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역사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진안 스마트 WE 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42억원(국비 3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모듈러 주택과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전기차 자전거셰어링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과 생활이 공존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생활SOC와 교통·문화·관광 기반시설이 지역별로 확충되는 것은 물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국토부, 휴가철 하계 특별교통대책 시행... 25일~내달 10일

국토교통부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해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

차도에 진입차단시설과 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지능형 CCTV를 활용해 비탈면 낙석과 붕괴 위험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하차도 통제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즉시 제공된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일반국도 9

개 구간(65km)을 신규 개통하고, 고속도로 50개 구간(371.62km)에 갓길차로를 임시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혼잡 예상구간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과 도로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차량 흐름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수용력도 대폭 확대된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11.1%(3만 7,452회), 좌석 공급은 8.3%(207만 6,000석) 늘어난다. 코레일 앱에서는 기차표 예매와 숙박 예약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로 개선했다.

공항 이용객 편의도 강화된다. 인천공항은 스마트패스 전용 출구장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제2터미널 셔틀버스를 증편한다. 임시주차장 9,116면도 추가 확보한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